

# 삼성, 한겨울 '4계절 에어컨' 새바람... 효율 1등급 넘어섰다

## SAMSUNG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신제품 공개 40도 수준 '체온풍'... 3세대 규정 효율 1등급 넘어선 특화모델 선보여 가격 인상폭 5% 정도로 최소화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펠케어·탈취·살균 3개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3세대 무풍 에어컨, 2023년형을 출시했다.

새로운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이 함박 눈 속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명실상부 사계절 가전으로 거듭난 모습. 성능은 물론 편의성과 친환경 경성까지 더 개선하면서 침체된 가전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삼성전자는 26일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과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공개했다.

가전업계는 일찌감치 1분기에 신형 에어컨을 출시해왔다. 에어컨이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으면서 설치하기 쉬운 겨울에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가, 공기청정과 제습 등 공조 기능 활용도 높아진 영향이다. LG전자도 지난 18일 자동 청정 관리 기능과 펠케어 등을 추가한 2023년형 휘센 타워에어컨을 출시한 바 있다. 위니아 등 업체들도 조만간 신형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에어컨은 2016년 처음 출시돼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확보할만큼 인기 모델로 알려져있다. '무풍' 기능으로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

를 만들었고,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2세대에 접어들어 지난해부터는 '체온풍'을 적용하며 사계절 가전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LG전자가 신제품에 온풍 기능까지 더한 상황, 삼성전자는 바다 난방이 발달한 국내 주거 환경에서는 봄과 가을에만 사용하는 40도 수준 체온풍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무풍 에어컨을 3세대로 규정했다. 3D 메탈 프레스 공법으

로 실루엣 디자인을 새로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무풍 마이크로홀도 27만여개로 종전보다 1500개 더 늘려 성능을 강화했다.

특히 무풍 기능을 전 라인업으로 확대했다. 갤러리와 클래식뿐 아니라 슬림 제품군에서도 무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체온풍도 갤러리 56.9㎡형 제품까지 적용을 늘렸다.

삼성전자는 3세대 무풍 에어컨의 또 다른 특징으로 '친환경'을 들었다. 일단 친환경 냉매인 R32를 슬림 모델로 확대 적용, 솔라셀 리모컨도 클래식 모델까지 제공한다. 갤러리를 기준으로 전 모델에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 열교환기 전열 면적을 2배 늘리고 실외기 팬을 8% 가량 더 키워 고효율 모터까지 적용해 1등급을 뛰어넘는 에너지 특화 모델까지 선보였다. 1등급 모델보다도 10% 냉방 효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극세 필터와 전기 집진 필터도 세척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도 친환경에 힘을 더한다.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스스로 작동을 조절해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해준다.

관리도 더 편해졌다. 이지케어 스마트싱스로 상태를 진단해주는 '이지케어 AI' 등 7단계에 항균 구리 극세 필터를 추가하며 8단계로 청결을 유지해준다. 삼성전자는 30초만에 팬까지 분리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편의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커버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도 제어해준다. 무풍에어컨 클래식으로도 적용을 확대하며 더 많은 소비자가 편의 기능을 쓸 수 있게 했다.

색상도 더 다양해졌다. 갤러리 기준 ▲패브릭 화이트 ▲스노우 포레스트 ▲아이보리 등 7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클래식은 ▲화이트 ▲산토리니 베이지 외당 6종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에어컨과 함께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도 함께 소개했다. 사계절 가전인 에어컨과 함께 '에어 솔루션'으로 같은 제품군이 됐다.

최영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앞으로도 친환경과 스마트싱스 등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KT, 희토류 등 몽골 광물자원 국내 공급

구현모 대표, 몽골 CTO로 위촉 몽골과 '디지털 몽골 실현' 협력



전라인 신부흥정책에 발맞춰 몽골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KT-몽골 간 DX 협력 과정 중 체결된 이번 희토류 등 몽골 광물자원 공급을 위한 MOU는 몽골의 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내 타 산업과 협력에 대한 한국 미래 가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가 몽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한다. 구현모 KT대표(사진)는 '몽골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 몽골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KT는 몽골 정부와 '디지털 몽골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희토류(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2위), 형석(3위), 금, 철, 아연 등 80여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미래가치 산업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광물자원이다.

KT는 지난해부터 몽골의 국가개발

KT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몽골에서 생산된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국내 타 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후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정부 및 국내 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몽골 최고기술경영자(CTO)' 위촉식을 갖고 외국 기업인 최초로

몽골의 국가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됐다.

KT는 구대표의 CTO 위촉을 계기로 몽골 정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KT는 하나로재단, 몽골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몽골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BC카드도 몽골 중앙은행과 카드 결제 연동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 통합 결제 시스템 및 매입 시스템 구축을 협의한다.

구 대표는 "지난 3년간 이루어낸 KT의 성장 전략, 노후를 글로벌 DIGICO 전략으로 확장해 국내외 타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 삼성전자, 英표준협회 BCMS 국제표준 획득

파업·부도·해킹, 지진 등 대처 평가 화성캠퍼스 구축체계 국내외 확장

삼성전자가 위기 극복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영국표준협회에서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BCMS)' 국제 표준 '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BCMS는 재해나 재난 등으로 업무가 중단돼도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 정상화하는 능력을 뜻한다.

파업이나 부도, 해킹 등 경영 문제

는 물론, 지진과 화재 등 자연 재해와 테러 등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고객사에 신뢰를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단 화성캠퍼스에 구축한 체계를 국내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BSI 코리아 임성환 대표는 "삼성전자는 사업 연속성 관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감시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美 PGA쇼 참가 글로벌 실내골프장 공략

LG전자가 글로벌 실내골프장 공략을 이어간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PGA쇼 2023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PGA쇼는 미국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골프 전시회로, 전세계 80개국 1000여개 이상 업체가 골프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LG전자는 상업용 프로젝트 LG 프로빔을 앞세워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작 전문기업 '케이골프'와 함께 공간 맞춤형 실내골프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가 골프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용 기자



(왼쪽부터) LG이노텍의 한병철 동반성장팀장, 신정곤 재경담당, 이용기 구매센터장, 신한은행의 강명구 대기업 강남본부장, 김영신 여의도중앙 대기업센터장, 최인석 여의도중앙 대기업센터 부지점장.

## LG이노텍, 협력사 ESG강화 나섰다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1430억 규모 동반성장 펀드 조성

LG이노텍이 협력사를 위한 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LG이노텍은 26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협력사 ESG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에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내용이다. LG이노텍과 신한은행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SG나 탄소중립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혜택 범위도 넓혔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 신한은행도 신규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는 동반성장펀드 규모는 1430억원에 달한다. 당

초 630억원에서 2020년 1030억원으로 늘린지 불과 3년만에 50% 가까이 증액한 것. 협력사를 위한 상생 금융 지원에 힘을 더한다는 의미다. 대금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제 기간을 매달 3회로 늘리는 등 노력에 이어 규모까지 크게 확대했다.

LG이노텍은 그 밖에도 협력사 테크페어와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와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6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이용기 구매센터장(상무)은 "LG이노텍은 협력회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기반은 동반성장 활동이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